

종합·국제

현장과 시각

새정부 출범을 보는 호남의 눈



임동욱

서울취재팀장

다음주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다. 그러나 이를 지켜보는 호남민의 마음은 착잡하다.

새로운 정부의 앞길을 축복하고 희망을 갖기보다는 우려가 앞서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우려의 근거에는 이명박 정부가 철저한 '호남 배제' 인사를 선보였기 때문이다.

우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구성이 철저한 영남 편향으로 이뤄졌다. 특위위원을 포함한 인수위원 32명 가운데 영남 출신이 무려 14명으로 전체의 44%에 이른 반면, 호남 출신은 3명에 불과했다.

이후 이뤄진 청와대 수석 인선에서는 호남 인맥은 아예 실종됐다. 대통령 실장과 7명의 수석, 홍보수석을 겸한 대변인 가운데 영남 출신은 5명에 이른 반면, 호남 출신은 전무했다.

최근 이뤄진 13개 부처 각료 인선에서는 영남 출신이 5명이나 기용되었지만 호남 출신은 2명에 불과했다.

이 같은 이명박 정부의 인선에 호남지역 민심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과거 영남정권에서 철저한 차별을 경험한 바 있기 때문이다.

당장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벌써 '영남 공화국', '겨울 공화국'이라는 말까지 떠돌면서 지역 갈등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이명박 당선인 측은 최근 이뤄진 인사는 능력과 전문성을 배려한 철저한 '실용 코드'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제화 시대에 이제 지역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하소연도 하고 있다.

원론적으로 맞는 말이며 당연한 얘기다. 그러나 역대 정권에서는 이점을 몰라 지역안배 인사에 나섰을까.

사회 통합을 통한 국가 경제의 업-그레이드를 내세우면서도 그의 근간이 되는 지역 화합을 외면하는 이명박 정부의 인선에 호남 민심은 답답하다는 반응이다.

특히, 호남 민심은 이명박 정부의 일방통행식 인사가 정책에서도 반영될 것이라는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다. 편향인사가 편향정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대통령직 인수위에서는 최근 '5+2 광역경제권 구상'을 내놓았지만 영남은 대경권과 동남권 등 2개의 경제권으로 된 반면 호남은 1개의 경제권으로 지정, 전북과 전남의 경쟁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명박 당선인은 지난 대선 유세전에서 기회 있을 때마다 호남에 대한 애정과 진정성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취임도 하기 전에 영남 편향의 인선으로 그의 진정성이 의심받고 있다.

그가 어떠한 정책으로 사회통합을 이뤄 대한민국의 업-그레이드를 이룰지 지켜볼 일이다.

/tuim@kwangju.co.kr

홍라희씨 전격 출국 금지

삼성특검, 삼성 비자금 고가 미술품 구매 단서 포착

삼성그룹 비자금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조준용 특별검사팀은 최근 이명박 회장의 부인인 홍라희(63)씨를 전격 출국금지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특검팀은 그동안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 회장 일가가 그룹 내에서 조성된 비자금으로 고가의 미술품을 사들인 단서를 포착하고 홍씨를 출국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철 변호사는 홍씨 등이 2002~2003년 서미갤러리 등을 통해 해외 미술품 구매시점에서 리히텐슈타인의 '행복한 눈물(90억 원 상당)'과 프랭크 스텔라의 '베를렌 병원'(100억 원) 등 고가의 미술품을 사들였으며 삼성 비자금이 구매 대금으로 쓰였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특히 김 변호사는 검찰이 2003년 말 대선자금 수사 당시 정치권에 뿌려졌다는 삼성재권의 사용처를 추적한 결과 홍씨가 동서지간인 이창희 전 새한미디어 회장의 부인으로부터 그림을 사는데 7억원 정도가 쓰였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조만간 홍씨를 소환해 고가 미술품 구입 경위를 조사하고 그림 값으로 삼성재권이나 기타 그룹 내에서 조성된 자금이 쓰였는지 등을 추궁할 예정이다.

수사진은 우선 이날 오후 홍씨의 미술품 구매를 대항한 것으로 알려진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를 다시 불러 미술품 구매를 둘러싼 의혹 사항들을 면밀히 조사 중이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과 고발 사건 조사를 위해 김홍기(61) 삼성SDS 전 사장을 피고발인 자격으로 소환했다.

김씨는 2001~2003년 삼성SDS 사장을 역임한 뒤 현재 한 정보통신업체 회장으로 재직 중이며 이날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인수' 사건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해 BW 발행 경위와 가격산정 근거, 인수 과정 등과 관련해 조사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삼성SDS가 1999년 230억원 어치의 BW를 발행하면서 이재용 전무와 부진·서현씨, 이화수 부회장, 김민주 사장

등 6명에게 주당 7천150원에 판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들이 회사 임원 6명을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다.

이와 함께 특검팀은 삼성 전현직 임원 1천800여명의 차명계좌와 3천800여개를 대상으로 차명계좌 여부를 확인 중이며,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임직원들을 선별해 소환하고 있다.

수사진은 이날 차명계좌 의혹과 관련해 있는 그룹 전직 임원 3명을 소환하기로 했으며 오전에는 이들 중 삼성전직 삼성엔지니어링 상무가 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11일째 삼성증권 전산센터 압수수색을 벌이는 한편 이 회장 일가의 재산관계를 밝히기 위해 국제청으로부터 과세자료를 분석하고 있으며 부동산 소유 내역을 파악하기 위해 건설교통부와 행정자치부에도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삼성 차명계좌 등으로 물의를 빚은 우리은행에 기관검교를, 당시 은행장으로 재직중이던 황영기 전 행장에 대해 주위적 경고 조치를 취했다. /연합뉴스



미국 민주당 대선주자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일리노이주)이 20일(현지 시각) 텍사스주 델러스의 리우니온 아레나에서 지지자들에게 연설을 하고 있다. 오바마는 민주당 경선에서 10연승을 거둔데 이어 오는 3월4일 텍사스와 오하이오 프라이머리(예비선거)에서도 승리하기를 바라고 있다. /연합뉴스

오바마, 굳히기나 힐러리, 뒤집기나

내달 4일 4개주 경선 최대 승부처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이 지난 5일(이하 현지 시각) '슈퍼화요일' 이후 19일까지 파죽의 10연승을 거두면서 한때 여론조사 부동의 1위였던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이 베팅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힐러리는 텍사스, 오하이오, 버몬트, 로드 아일랜드 주 등 4곳(대의원수 444명)에서 경선이 실시되는 내달 4일 '미니 슈퍼화요일'에서 큰 표차로 오바마에게 실욕하지 못할 경우 대권도전의 꿈을 접어야 할 지도 모르는 위기국면을 맞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내달 4일 경선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결정짓는 최대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힐러리, '10연패 늑' 헤어날 묘책 비상 =전날 실시된 위스콘신, 하와이주 경선에서도 오바마에게 승리를 뺏긴 힐러리는 차기 경선인 내달 4일 '미니 슈퍼화요일' 대결은 반드시 이겨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이에 따라 힐러리 진영에선 내달 4일 대결에서 오바마를 이길 묘책을 찾기 위해 비상이 걸렸다.

힐러리는 일단 21일 예정된 오바마와의 '맞짱 TV 토론'에서 오바마를 집중 공격해 대역전극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힐러리는 20일 뉴욕시 헌터대학에서 열린 선거자금 모금행사에서 오바마를 말만 화려할 뿐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을 보여준 게 없다고 맹비난하고 자신을 '중간계층의 옹호자'라고 주장하면서 차별화했다.

◇오바마, 여성·노동계층 등 힐러리 지지기반 잠식 =미국 역사상 첫 흑인 대통령을 꿈꾸는 오바마는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가진 선거유세에서 지지자들에게 "우리가 추구하는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 몇 달, 몇 마일을 더 가야 한다"고 지지를 호소한 뒤 대통령에 취임하면 1년 이내에 이라크 전쟁을 끝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바마 진영은 위스콘신주 선거결과 전 통적으로 힐러리 지지기반이었던 여성과 노동계층, 저소득층에서도 힐러리에 필적하는 많은 지지를 받았다며 '미니 슈퍼화요일' 승리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연합뉴스

대미 관계개선 의지?

북한이 오는 26일 뉴욕필하모닉의 평양공연 장면을 북한 전역에 생방송하기로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북한은 대외의 행사를 TV에서 방영할 때 녹화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생방송으로 내보내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방영전에 출판기념회에서 사전검열한 뒤 내보낸다. 북한 방송이 자주하는 '실황중계'라는 것도 실시간 실황중계가 아니라 2시간 이상 늦춘 녹화중계가 원칙이다.

군대나 노동당 창건 기념일에 갖는 열병식, 각종 군중대회, 예술단 공연 등에 대한 '실황중계'라는 것은 사실 모두 녹화중계다.

과거 김일성 주석이 새해 국정운영 방향을 밝히는 신년사를 육상으로 발표할 때도 녹화와 녹음으로 이뤄졌을 정도다. 지난해 남북정상회담도 북한에선 모두 녹화 방송됐다. 대외행사의 경우 최근 일부 예외가 있었다.

2002년 9월 KBS 교향악단이 평양에서 북한의 국립교향악단과 합동 공연을 했을 때 조선중앙TV가 생중계했고, 같은달 윤도현 밴드가 최진희, 임용균, 이미자 등과 함께 꾸민 '2002 MBC 평양 특별공연'의 두번째 무대 '오! 통일 코리아' 공연도 생방송으로 중계했다.

KBS교향악단이 공연한 것은 장영주 양의 바이올린 협주(카르멘 환상곡) 등

뉴욕 필 평양공연
北 이례적 생방송

고전음악이고, 윤도현밴드는 북한에서도 공개적으로 불리는 '아침이슬' 등 정적 부담이 적은 노래들이라는 점과 이들 행사에 대한 북한의 이해관계 등이 작용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뉴욕필의 공연도 비교적 정치적 색채가 없는 고전음악이므로 북한으로선 위험부담이 적다.

북한은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음악과 소설 등의 고전은 주민들에게 널리 소개하는 편이다. 뉴욕필이 연주할 미국의 애국가도 북한 애국가와 함께 연주된다는 점에서 대미관계 개선에 대한 북한의 기대를 감안하면 북한이 감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남북 베이징서 양자회담... 북핵신고 논의

북핵 6자회담 남북한 수석대표인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21일 베이징에서 양자회담 갖고 북핵 신고 문제 등을 논의했다.

천 본부장과 김 부상은 이날 오전 9시35

분(현지시간)부터 베이징 차이나일드호텔에서 만나 북핵 신고 문제와 6자회담 재개 방안 등을 협의했다. 김 부상은 호텔 입구에서 양자회담 목적을 묻는 질문에 미소를 지으며 "지금은 말할 단계가 아니다"

라고 답변하고 면담장으로 들어갔다. 이에 앞서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도 19일 베이징에서 김 부장과 만나 북핵 신고 문제 등을 논의했으나 뚜렷한 합의안 마련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북미 양자회담 이를 만에 천 본부장과 김 부상이 회담함에 따라 북핵 신고 문제 해결을 위한 새 돌파구가 마련될지 여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연합뉴스

2009년 교원임용고사 대비 = 겨울학기 교육학+전공특강 = 2009학년도 새롭게 변화된 시험제도 완벽 대비 기회!! 최고의 직종들을 자랑하는 현대고시교육연구소와 함께 시작하십시오. 교육학 김인식 교수(직강) 개강 1월 10일(목) 10:00~19:00 초등교육 배재민 교수(직강) 개강 1월 6일(일) 13:00~19:00 유아교육 박수정 교수(직강) 개강 1월 7일(월) 15:00~21:00 국어 유광재 교수(직강) 개강 1월 5일(토) 10:00~18:00 영어 류호강 교수(직강) 개강 1월 6일(일) 10:00~17:00 과학교육 류호창 교수(직강) 개강 1월 5일(토) 14:00~18:00 = 공인중개사/주책관리사 합격설명회 = 배주- (화,목) 오후 6시- (토) 오후 3시 현대고시학원 동부경향서원 (062)222-6790 www.hgosi.net

= 귀하의 합격!! 無等과 함께 하면 더욱 빠릅니다!! = 7·9급 공무원 전직종대비 정규이론A반 모집 개강 3월 3일 (수·아침 9시) 5주 완성 (전직종대비) (주·아침 9시~4시) 27학, 6173명(합격생률) 2008년 국가직/ 지방직 공무원시험 거침없이 합격하라! - 한빛이 응원합니다. 7급 공무원 합격특강 개설장소: 행정직, 교육행정직, 사무직, 병합직, 경찰직, 사회복지직, 공무원, 교정직, 소방직, 농림직, 토목직, 건축직, 전선직, 보건직, 기술직 9급 문제풀이반 (1개월완성) 개강 3월 3일 9급 이론출수반 (2개월완성) 전직종 첫진도 사전예약접수중 한빛공무원학원 전대홍문 북구청앞 (062) 252-0252

마술 (Magic) 무료 수강생 모집 마술이란 강동과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매신지입니다. 마술을 통하여 어린이에게는 꿈과 아이큐 향상을, 성인에게는 개인의 장기자랑 및 취미생활로 활용하며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은 웃음을 잃은 사람에게 용기와 꿈과 희망을 주는데 목적이 있으며, 본 무료교육 프로그램은 마술에 관심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사회봉사차원에서 실시하는 무료강좌 프로그램입니다. *모/집/대/상* 유치원, 초·중등교사로서 수업에 활용하실분 봉사활동 및 취미로 배우시려는 주부 및 어르신 마술에 관심있는 초·중·고등생 및 일반인 소극적인 성격 개선 및 각종 발표회에 응용 비즈니스를 위한 영업전략에 활용하실분 초·중등생 게임중독치료 및 발표력 향상 초·중등 특기적성 마술교사로 활동하실 분(취업추천) 무료 초·중등 어린이 마술 교실 특강 마술은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과 아이큐 향상 및 요즘 화두로 떠오르는 BQ(감성)지수도 높여준다. 특히 성격 개선 및 각종 발표회에 활용할 수 있다. *교육기간: 주1회 8주 2개월 *교육비: 무료(마술도구비 별도, 개인소장) *교육장소: 동부경향서원 무등고시학원 *접수방법: 선착순 20명 전화 예약 접수(개인교습) 마술지도자 강사취업 연구생 모집(마술지도자 자격증 과정) *강종행사·마술출장공연·어린이관련행사·교회행사 *각종복지관·초·중등특기적성 마술교사로 활동 하실 분 *교육기간: 주 2회 4개월 완성 *교육내용: 초급 중급 고급과정, 아동심리학, 아동지도론, 마술학개론(이론+실기) *모집인원: 20명 한성교육 수료후특전 ·전원 취업 추천 ·마술지도자 자격증 취득 매직&매직 아카데미 (062)434-7857